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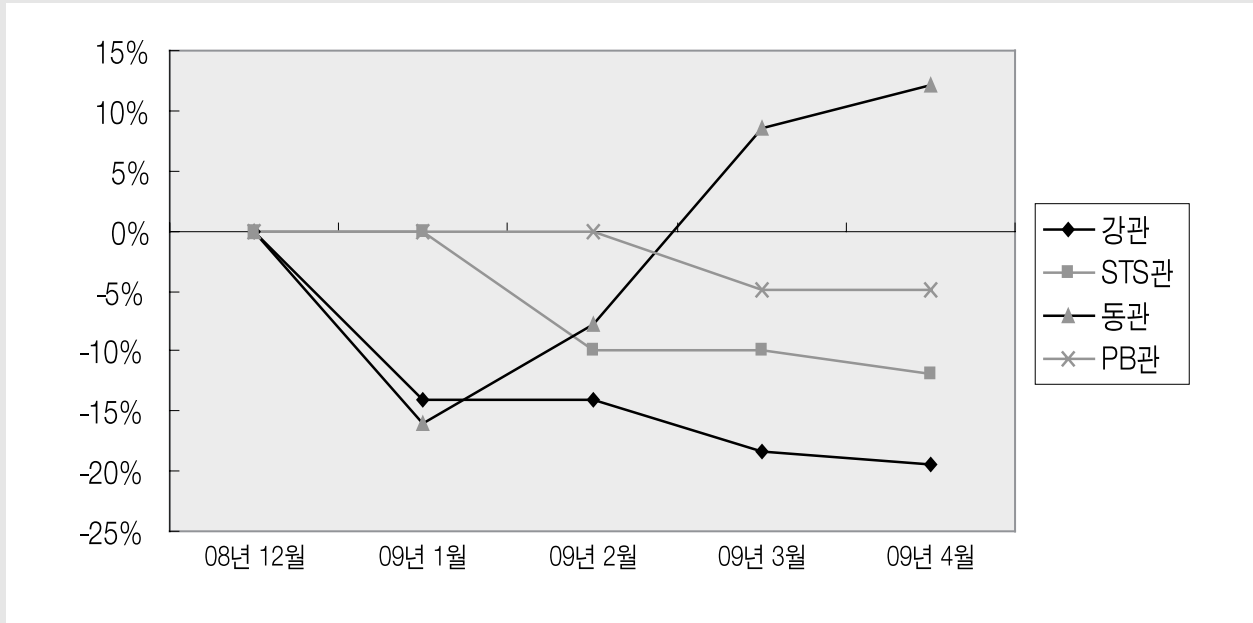
한치 앞 전망이 곧 회사 이익

김현회 / 원켄네트웍스 사업총괄본부장

4월은 잔인한 달이고,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던가? 하지만 시장은 계속 잔인하다. 건설 경기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원자재값은 수요도 없는데 오르고 있다. 물론 중국의 가수요 영향이 큰 지라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 우선 자재 전반에 관한 최근 동향을 살펴본 후, 추가적으로 그래프를 보면서 세부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다.

4월 자재 동향

자재 전반	일부 자재의 경우 가격 하락 추세 또는 안정세 유지. 원자재에 대한 국내외 수요 감소가 주된 요인임
수입 연관 제품	완제품 형 자재(주철제, 공구약세사리 등)는 물론이고 원자재, 반제품 형태 등 각종 수입 연관 자재들은 환율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음 환율이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속적인 안정 기조가 아니면 인상 추세가 강하게 유지될 것임
동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영향을 받은 동 스크랩 가격 인상, 제조사 마진을 정책이 맞물려 인상폭이 예상을 넘고 있음. 가공비를 적용하지 않은 제조사도 있으니 구매시 참고 요망
동 연관 제품	황동 밸브, XL 부속, 신주 부속 등 연이어 인상. 관련 제품의 가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추정
기타 자재	형강 : 가격 인상 추세, PVC : 실수요 감소로 보합세 유지 전망
전체 전망	중국발 원자재 가수요로 일부 인상 요인이 있으나, 환율 변동, 실수요 감소, 제조사 감산에 따른 재고 부족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보합세 유지 전망
구매 전략	가격 인상 가능성이 높은 자재의 경우 설비사 별로 향후 필요한 물량을 미리 취합하여 통합 선구매를 할 필요가 있으며, 여러 회원사가 모여 공동 구매를 하면 대량 구매 및 사전 계약에 따른 가격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임



올 들어 가장 급등세를 보인 설비 자재 중의 하나가 동관이다. 위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동관은 1월 기준으로 30% 가까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제 동 스크랩 가격이 많이 오른데다 계절적 수요와 중국 및 국내의 가수요도 한몫을 했다. 하지만 실물경제의 뒷받침이 없는 상승은 곧 꺾일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얼마 전 언론에서 구리 가격과 관련하여 재미 있는 분석을 내놓았다. 즉 구리 값은 코스피 그래프와 거의 일치한다는 것이다. 구리 값 변동을 보고 경기 예측 또는 주가 예측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역으로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즉, 경기 예측이 어느 정도 된다면 구리 값 예측도 가능하다는 추론이다. 회원사 중에는 그래프 분석과 정보 교환을 통해 연초에 어느 정도 전망을 하고 선 구매를 하여 30% 가까이 이익을 본 사례도 있다.

강관 가격은 그 하락세가 뚜렷하다. 수요가 없고 재고

도 아직 덜 소진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래에 국제 철 스크랩 가격이 오르고 있어 향후 가격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전반적으로 자재 가격은 약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근거 없는 경기 회복 전망으로 가수요가 붙는다면 단기적으로 인상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김현회(金炫會) 총괄본부장 프로필



- 現 원캐네트웍스 (구 설비넷) 사업총괄본부장
-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졸(91년)
- 삼성그룹 공채 입사(91년, 삼성화재 발령)
- 홍보실 근무(사보, 사장단 연설문 작성, 사내방송PD, 언론·인터넷 담당 등)
- 삼성그룹디자인연구원 멀티미디어학과 및 UCLA Extension(뉴미디어, 스토리텔링 등) 과정 수료
- 시장개발 및 영업기획 업무 담당(PDA영업, 리플렛 기획 등)
- 인터넷사업팀 근무(삼성화재 전국에니카서비스망 구축, 전자 인터넷사업 기획 운영 등)